경북매일

한세광 포스텍 교수, 송곡과학기술상 수상

이시라기자 | 승인 2022.02.08 20:15 | 15면

한국과학기술연구원(원장 윤석진)은 제24회 송곡과학기술상 '신소재개발 분야'의 수상자로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<사진> 교수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.

한 교수는 생체 재료를 이용한 스마트 나노의약 4건의 상업화를 이뤄냈고, 생체고분자 하이드로젤을 이용해 난치성 질환 유전자 변형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해 상업화를 추진 중이다.

이 외에도 당뇨 진단 및 합병증 치료 약물전달시스템이 장착된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해 차세대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학문적·산업적 발전에 기여했다.

한세광 교수는 "개발한 스마트 콘택트렌즈는 당뇨 환자를 위해 혈당을 측정하고 투약까지 할 수 있다"며 "신소재 및 스마트 웨어러블 의료기기에 대한 융합연구를 통해 여러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기술 개발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"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.

한편 송곡과학기술상은 송곡(松谷) 최형섭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자 1999년에 제정됐다. 세계 정상수준의 신소재를 개발했거나 국가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연구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자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.

/이시라기자 sira115@kbmaeil.com

이시라기자 sira115@kbmaeil.com

저작권자 ©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